

목포시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손님맞이 준비

5월 잇따라 개최...교통·숙박·도시 미관 정비 등 사항 점검 22일까지 모범 음식점 108곳 대상 친절·위생 모니터링 실시

목포시가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목포시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이상진 부시장 등 30여 명의 간부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추진계획 보고회를 하는 등 온 힘을 쏟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과 교통·주차 및 숙박·음식점 관리대책, 환경·도시미관 정비,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집행부 준비상황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주 개최도시로 경기장 시설, 홍보, 도심 환경정비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와 관람객 등 손님맞이 준비를 차질없이

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비전에 걸맞게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예정이다.

시는 또 최근 올해 첫 음식문화개선 실천 모니터링 간담회를 하고 음식점에 대한 친절·위생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모니터 요원 5명은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마치고 오는 22일까지 관내 모범업소 108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다음 회차에는 모니터 요원들이 모범업소와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안심식당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모니터링과 함께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적정량 제공, 반찬 가짓수 줄이기, 소형잔기 사용 등 간소한 상차림을 권장하고 좋은 식단 실천 등 홍보도 추진한다. 시는 지속해서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발굴함으로써 중점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홍보하고 정결 운동과 위생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장애학생체전은 5월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개최식을 시작으로 육상, 축구 등 8개 종목이, 이어 5월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은 육상, 수영 등 9개 종목이 주 개최지인 목포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상진 목포시 부시장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체전에 주인공은 학생들이 만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해 학생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지난 16일 목포시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사항 보고회를 갖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남군, 100억 투입 옥천·계곡지구 상수도 공급

배수관로 31.5km 설치...2027년 완공되면 상수도 보급률 95%

해남군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옥천면, 계곡면 일원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도비 79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해남군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인 옥천·계곡지구에 31.5km의 배수관로를 설치해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게 된다. 오는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6월 공사 착공,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은 관정을 이용한 마을상수도과 개인 지하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으나 지하수

수원이 고갈되면서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면 수원부족에 따른 단수와 제한급수 등의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한편 해남군 상수도 보급률이 95%로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옥천면과 계곡면 간에는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상수도 공급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는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비상연계 관로를 구축해 가뭄이나 수도 사고 발생시 단수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6월 공사 착공, 현재 공정을 26%로 배수관로 41.26km와 가압장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비상공급망 구축은 내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대비는 물론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해남군 전지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 65세 어르신, 건강 걷기하고 상품권 받고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10만보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진행 앱 '워크온' 내려받아 신청 가능

영암군이 65세 이상 주민이 20일간 10만보를 걸으면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준다.

영암군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오늘 건강!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영암에 사는 65세 이상 주민이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매일 5000보씩 20일간 10만보를 걸으면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1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모바일 앱 '워크온'을 내려받아 영암군 공식 커뮤니티 '오늘 건강!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에 가입한 뒤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영암군은 월출산 기찻길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는 참가자에게 경품을 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영암군이 진행한 걷기 행사에는 모



영암군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65세 이상 영암 주민이 20일간 10만보를 걸으면 지역화폐 1만원권을 준다. (영암군 제공)

두 1만4677명이 참여하며, 전남 걷기 실천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이 이번 도전에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영암사랑상품권도 받는 재미를 누리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 어린이 건강교실

치과 의사·영양사 등 건강증진팀 아동센터 찾아 건강 실천법 교육

무안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지역 아동센터 5곳을 대상으로 '신나는 겨울방학 더자람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더자람 건강교실'은 치과 의사와 운동지도사,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팀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성장기 아동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방법을 알려준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편식교정 영양교육을 하고 성장판 자극 운동도 가르친다. 또 흡연 예방 교육, 충치로부터 치아를 지키기 위한 일대일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 구강보건서비스도 제공한다.

무안군은 지난 14일 환경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건강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동 변화를



무안군 보건소 관계자가 겨울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건강교실을 열고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무안군 제공)

이끌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청렴도 향상' 공직 기강 세운다

지난해 최하위 등급...내부 역량 강화·부패 차단 등 4대 전략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신안군이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으로 공직 기강을 세운다.

신안군은 청렴 문화와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워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신안군은 외부 청렴도가 떨어지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신안군은 '내부 역량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사전 차단', '청렴 인센티브 제도' 등 4대 청렴 추진 전략을 세웠다.

7대 추진 과제로는 '분야별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 공직문화 조성',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청렴 문화 조성', '부패 사각지대 보완·열린 감사 정착' 등이 있다.

특히 인허가 분야와 계약, 보조금 지원 부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개선책

도 마련한다.

앞서 신안군은 15일 청렴 결의대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청렴 감성 교육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찾아가는 청렴 지킴이단'을 만들어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익신고 창구'를 마련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수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분기마다 1부서 1청렴 시책 보고회를 열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현실성 있는 청렴 실천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청렴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도 이뤄진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렴한 공직자가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사회"라며 "신안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 1위

지난해 74.5% 전남 1위...독촉장·압류 등 징수 활동 성과

완도군이 지난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을 74.5% 기록하며 전남지역 1위를 나타냈다.

완도군은 지난해 이월 체납액 8억4200만원 가운데 6억27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74.5%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 평균 징수율 44.7%보다 29.8%포인트 높고,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완도군은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 고지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납부를 촉구했다. 내지 않으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했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완도지역 이월 체납액은 13억900만원이다. 완도군은 이 중 80%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도군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건수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희수 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성과는 군민들의 납세 의식과 협조가 힘입은 것"이라며 "올해도 전남 목표치보다 많은 체납 세액을 징수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대기 환경 개선에 올 21억 투입

노후경유차 폐차 등 13개 사업...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도

영광군은 올해 사업비 20억6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대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한 사업에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490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67대) 등 13개 사업이 포함됐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던 4등급 조기 폐차를 전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단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이나 영광군 환경과,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도 있다. 가구당 60만원씩 7가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에는 3가구(가구당 80만원)를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에 따른 지원조건과 세부 일정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영광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